

頭巾類 제작을 위한 여대생의 頭部 형태 분석

이 진 희(원광대학교 생활과학부 의상전공)

인체의 크기나 형태를 파악하는 체형연구는 체간부 뿐 아니라 모자나 양말, 장갑과 같이 인체에 부분별로 이용되는 의복에 대해서도 그 적합성을 위해 각 부위별로 폭넓은 연구가 요구된다. 다양한 형태의 개성표출과 자유로운 자기표현은 의복에 의해 체간부를 덮는 표현 외에 머리 및 손, 발등의 다양한 신체 부위로의 이미지 연출은 또 다른 패션의 표현이 되고 있다. 특히 모자의 착용은 서양사람들에 의해 주로 착용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요즘 젊은이들에게 자주 착용되는 패션 아이템이 되고 있다.

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착용되는 頭巾類 제작에 도움을 주고자 여대생의 머리형태를 2차원 계측을 통해 계측한 자료를 통계 분석하고, 형태를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. 연구대상은 여대생 8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, 항목간에 상관이 적으면서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 3항목(귀구슬점-머리마루점길이, 귀구슬사이-머리마루점, 눈살점-머리마루점-뒤통수점길이)을 기준으로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, 각 유형별 빈도는 유형 1에는 9명이, 유형 2에는 48명, 유형 3에는 29명이 포함되었다. 그 특징을 살펴보면, 유형 1은 모든 항목에서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, 유형 3은 머리마루점-뒤통수점길이가 유형 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.